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김포시의회 주소지 # 2026. vol. 56

김포시의회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2026 Vol. 56

김포시의회 소식



2026년 봉성산 해맞이

gimpocouncil.go.kr

김포시의회
Gimpo City Council


의회
Gimpo 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달려온 4년,
더 큰 김포의 미래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2026년 새해를 맞아 <의정소식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해이자, 그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4년,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때로는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으며 들었던 간절한 목소리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8대 김포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인프라 개선, 민생경제 활성화 등 김포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례 하나하나에 시민의 삶을 담고, 예산 한 푼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뿌린 변화의 씨앗이 김포의 더 큰 번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은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등불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성숙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임기 또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의원소개 및 활동사진


김종혁 의장


배강민 부의장


김기남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종우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유매희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오강현 의원


김계순 의원


황성석 의원


권민찬 의원


이희성 의원


김현주 의원


정영혜 의원



김 종 혁 | 의장

선 거 구	나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00
이 메 일	kjh2595@hanmail.net

1 제80회 광복절 경축식
2 2025년 을지연습 현장
3 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4 김포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









배 강 민 | 부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01
이 메 일	gangmin0863@hanmail.net



1 김포문화재단 10주년 기념식
2 너나우리센터 간담회
3 제264회 임시회 본예산안 심의
4 '김포시 교통취약 · 주차문제 해법을 찾다' 정책토론회











김 기 남 |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선 거 구	나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7
이 메 일	gimponuri79@naver.com

1 제80회 광복절 경축식
2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3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 정책토론회
4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전략' 강연회









한 종 우 | 행정복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6
이 메 일	farmerhan@hanmail.net



1 2025년 을지연습 현장
2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3 2025년 라베니체 축제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유 매 희 | 도시환경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20
이 메 일	no1gimpo@naver.com

1 2025년 을지연습 현장
2 의정활동자문위원회의
3 2025년 김포들가락 학술제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김 인 수 |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9
이 메 일	ppdkim@naver.com



1 제4회 김포시 장애인 어울림 컬링대회
2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3 자유총연맹 현충탑 참배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유 영 숙 |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8
이 메 일	yys3920@gmail.com

1 2025년 을지연습 현장
2 김포시 BLT-BTO 활용방안 연구회
3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4 2025년 '천사의 날개를 달다' 기탁식











의회 오 강 현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2
이 메 일	ogang8@hanmail.net

1 김포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2 김포문화재단 10주년 기념식
3 김포시 초등돌봄시설 예술교육 전시회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김 계 순 |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4
이 메 일	1219mjwin@gmail.com

1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2 김포시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토론회
3 제2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5년 '천사의 날개를 달다' 기탁식









의회 황 성 석 |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나선거구 (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3
이 메 일	hss71026@naver.com

1 2025년 을지연습 현장
2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3 제262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4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협의회











의회 권 민 찬 |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73
이 메 일	hi-gimpo@naver.com

1 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2 제26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3 지속가능한 명품도시연구회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이 희 성 |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72
이 메 일	actorlhs@naver.com



1 김포시 BTL-BTO활용 방안 연구회
2 제29회 노인의 날
3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김 현 주 |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5
이 메 일	dh6461dh@naver.com

1 2025년 김포 장애인 부모대회
2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향산초)
3 제29회 노인의 날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회 정 영 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1
이 메 일	baby51300@naver.com



1 제4회 김포시 장애인 어울림 컬링대회
2 김포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3 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4 제264회 임시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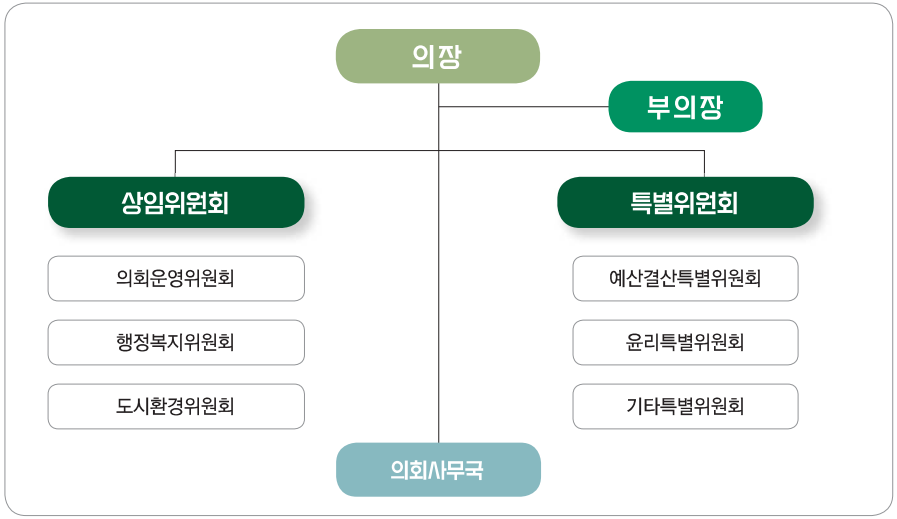








조직도



의장단

의장	부의장
	
김종혁	배강민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


한종우


유영숙


오강현


정영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김기남


권민찬


이희성


김현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


김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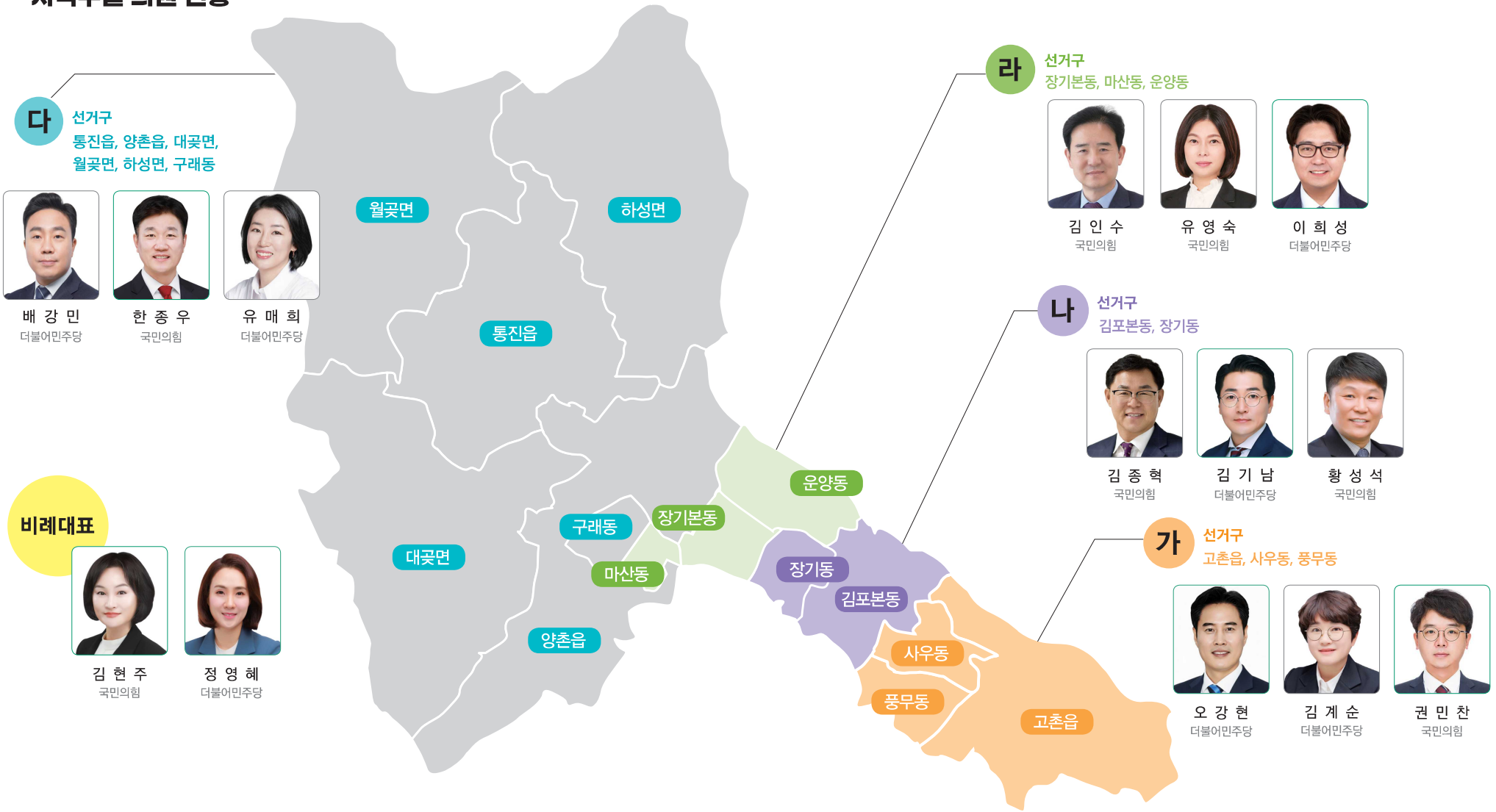

배강민


김계순


황성석

제8대 김포시의회

지역구별 의원 현황



GIMPO CITY COUNCIL

NEWS

의정뉴스

2025. 7. ~ 2025. 12.

1	2025.7.16.	김포시의회, 김포시자율방범대와 간담회
2	2025.7.21.	김포시의회,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
3	2025.7.28.	김포시의회,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4	2025.8.11.	김포시의회, 공공시설 확충 해법, 민간투자서 찾는다…김포시의회 연구 착수
5	2025.9.3.	김포시의회, '청렴한 의정'다짐… 2025년 청렴 교육 실시
6	2025.9.30.	김포시의회, 2025년 제2차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7	2025.10.1.	김포시의회,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현장연구 실시
8	2025.10.20.	김포시의회,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세종·공주 4개 기관 현장연구 실시
9	2025.11.4.	김포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정책토론회 성료
10	2025.11.12.	김포시의회, 생활권 맞춤형 교통혁신 제시
11	2025.11.21.	김포시의회,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전략' 주제로 강연 개최
12	2025.12.23.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모색
13	2025.12.24.	김포시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3년 연속 우수 성과 달성
14	2025.12.26.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 정책토론회 성료

01 김포시의회, 김포시자율방범대와 간담회



2025.7.16.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대장 신용철)을 비롯해 각 지역 방범대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토로했다.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차량 및 방범초소의 노후화,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부족, 전용 사무실 부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방범대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범대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400여 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와 시민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70만 도시를 대비하고 있는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종혁 의장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경찰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과 자율방범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민관 협력 치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02 김포시의회,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



2025.7.21.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남 의원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 구간의 지상 건설은 김포시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반드시 지하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03 김포시의회,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2025.7.28.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4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종혁 의장을 비롯해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양촌대책위, 연합비상대책위, 통합주민대책위 등 4개의 대책위가 통합되어 구성된 통합대책위의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 구성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건의했다.

▲ 대외적 주민대책위원회 의사표시에 있어 김포시의회의 공동대응 요청

▲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한 주민 피해 구제 촉구

▲ 주민대표, LH, 김포시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기구 설치 요청

김종혁 의장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김포시민 전체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협의 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향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의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04 김포시의회, 공공시설 확충 해법, 민간 투자서 찾는다…김포시의회 연구 착수



2025.8.11.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가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닻을 올렸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대표 유영숙)는 지난 7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가능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도입의 타당성 분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도입모델 제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 등 총 5명의 시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오매직 김은경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김포시 공공시설 수요 및 여건 분석 계획 ▲BTL·BTO 등 민간투자방식 비교·검토 방안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 모델 제시 방향 ▲단계별 연구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연구회는 공공시설 확충, 재정 부담 완화,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인구 급증과 생활 SOC 수요 확대로 공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일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의 결론은 단일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김포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 시설 확충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 수요가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김포시의 공공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가능성과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할 예정이다.

05 김포시의회, '청렴한 의정'다짐 2025년 청렴 교육 실시



2025.9.3.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9월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의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지훈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앞서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열고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종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06 김포시의회, 2025년 제2차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25.9.30.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9월 30일 '2025년 제2차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며 민간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실시된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가 스스로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9월 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합동으로 전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4대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해 윤리적 의정활동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 행동강령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의회의 윤리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조윤숙 위원장은 "이번 점검 결과는 김포시의회가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혁 의장은 "청렴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점검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적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7 김포시의회,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현장연구 실시



2025.10.1.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희성)'은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을 방문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대한민국와인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벤치마킹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영숙, 김현주 의원이 참여했으며, 축제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영동군의회 의장단 및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엑스포 유치 배경, 운영 전략,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영동와인터널과 대한민국와인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운영 방식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구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역 생산품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매 촉진 사례는 축제를 통한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영동난계국악축제 현장에서는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난계 박연 선생의 업적과 국악이라는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 운영,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청취했다. 전통과 역사 기반의 축제가 도시 정체성과 결합된 점에 주목하며 김포시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이희성 대표의원은 "시민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김포형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타 지역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은 시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과 정책 연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08 김포시의회,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 세종·공주 4개 기관 현장연구 실시



2025.10.20.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 (대표의원 김기남)'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특별 자치시와 공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국립어린이 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환경성 건강센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연구에는 김기남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민찬, 유매희, 황성석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기관 및 선진 정책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본 연구모임에서 주관하였던 전문가 초청강연"AI반도체와 자율주행의 글로벌 동향"의 연장선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연구도 함께 이뤄졌다. 현장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실증과 교통관제를 통합 운영 중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며 김포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참여형 전시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아동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에 위치한 환경성 건강센터에서는 산림과 치유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재난 및 생활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사례별 맞춤형 시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점검했으며, 이는 향후 김포시 안전체험관 조성 시 참고할 계획이다. 김기남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생활안전 · 산림치유·아동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며, "김포시 실정에 맞는 미래형 도시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는 지난 3월 안동시 수변공간 현장연구를 시작으로, 이번 현장연구에서는 미래기술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중심의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도시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김포 조성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09 김포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정책토론회 성료



2025.11.4.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4일(화)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제15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추진해 온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혁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정기관·학교 현장·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현장·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포는 교육을 도시의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시·산업·청년·돌봄 정책을 하나로 엮어가는 통합적 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시범 단계를 넘어,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가 특구로서 실질적 교육혁신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은화 김포시 교육자치팀장은 "김포시는 교육을 시정 핵심 전략으로 삼고, 돌봄·글로벌 교육·AI 기반 미래인재 양성 등 21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돌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AI·소프트웨어 교육 등 김포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해 교육이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포교육지원청 김지원 장학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은 김포의 인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늘봄교실,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 글로벌·IB교육, 자율형공립고·특성화고 운영 등 김포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구 사업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김포형 교육모델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마송고등학교 허철규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AI·디지털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진로·탐구 역량 강화, AI·로봇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 김민정 회장은 "학부모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돌봄,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지역별 균형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현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김포시 교육발전특구가 만들어온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다"며, "교육이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시민과 학교, 교육청,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굳건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김포시 및 교육청에 전달하고, 김포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10 김포시의회, '김포시 교통취약·주차문제 해법을 찾다' 정책토론회 성료



2025.11.12.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전환 논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장기도서관에서'제16회 김포시 교통취약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주차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시의원과 교통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이 함께 참석해 김포 교통문제의 현실과 해법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포는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교통 수요가 특정 시간대·생활권에 집중되어 북부권, 신도시권, 원도심 등 지역별로 교통취약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생활권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며 "현재 김포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시설 확충과 공급 위주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만차로 지나가는 버스, 통학로의 안전 문제, 장애인콜택시의 긴 대기시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활 속 불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나 광역버스 확충은 중장기 과제이지만, 당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생활권 순환형 버스체계나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도입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읍·면 지역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통뿐 아니라 주차정책의 전환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김포의 주차난이 '주차면의 총량 부족'이 아닌 '공간 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외곽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균형형 주차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AI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빈 주차면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공공용지의 입체화 활용, 혼잡도에 따른 차등 요금 부과 등 스마트 주차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배강민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교통취약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은 단순히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면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근길의 피로, 퇴근 후 주차 스트레스, 통학길의 불안이 사라질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정책 방향을 김포시와 긴밀히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정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이만호 경기교통공사 팀장, 김지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임정원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통 및 주차정책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시민 의견을 김포시에 전달하고,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1 김포시의회,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전략' 주제로 강연 개최



2025.11.21.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대표의원 김기남)는 최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응용AI융합학부 황한솔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기남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매희· 권민찬·김인수·오강현·이희성 의원과 김포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황한솔 교수는 강연에서 AI가 인류 역사상 증기기관급 혁신으로 평가될 만큼 산업과 행정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LLM의 추론능력 확장 ▲에이전틱 AI ▲멀티모달리티 ▲연산능력 강화 ▲투명성 증가를 AI 5대 혁신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챗GPT 중심의 단일체제에서 제미나이·클로드 등 다수 AI 플랫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지 기반 추론, 피지컬 AI, 제로클릭 시대 등을 언급하며 핵심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해외 공공기관의 AI 도입사례로 영국의 AI 기반 감사 시스템, 미국 연방정부의 AI 활용사례를 언급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 '성동GPT', 부산시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정책홍보 등 도입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

황 교수는 "지방정부 AI 도입은 기술 추종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중심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AI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무 단계별로 AI가 투입될 시점을 설계해야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기남 대표의원은 "생성형 AI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행정·산업·교육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며 "김포시가 앞선 기술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흐름, 워크플로우에 AI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활용을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연구단체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강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2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모색



2025.12.23.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 대표의원 유영숙)는 지난 19일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된 연구회는 약 11개월간 총 10차례의 연구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의 우수 사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별 시설 운영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이와 같은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의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부 동지역과 북부 읍·면 지역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며,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집행부와의 정책 논의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3 김포시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3년 연속 우수 성과 달성



2025.12.24.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제도 운영과 개선 노력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실시된 기초시의회 평가는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75개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가 없어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80.3점)에서도 기초시의회 평균(73.4점)을 웃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사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예방, 부당한 업무 지시 차단,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포시의회가 그동안 역대 종합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반부패 제도 강화와 청렴 교육, 내부 점검 체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종혁 의장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가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 정책토론회 성료



2025.12.26.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3일(화)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제17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전문가와 시민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정책·선진사례 등 전문가 관점과 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석좌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전략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전 부서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김포시도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물·수송 부문 정량적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경순 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라며, "김포시민의 역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김포시는 향후 10년 내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10개년 단계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도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포시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하여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연급하기도 하였다.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 ▲제로에너지 빌딩을 활용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태양광 사업의 시민주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끝으로 본 토론회의 좌장인 김기남 의원은"오늘 토론회는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 발전의 새로운 첫걸음"이라며, "이 논의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 김포만의 해답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김포시에 전달하고,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260회 임시회 2025. 7. 21. ~ 7. 23. 개회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 김포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추경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하나된 김포시의회로서 시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비판과 충고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김포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우리 시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포 장기동에서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으로 노선이 개통되면 우리 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하나뿐인 김포골드라인 노선과 협소한 열차 공간 등으로 인해 교통이 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계기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개선은 물론이고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혼잡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기에 이번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열망 그리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GTX-D 노선 사업이 지연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에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추진 중인 교통사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남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교통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며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은 유례없이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폭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만 해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증가, 가뭄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가도 이제는 예상치 못한 많은 비로 인해 전국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날씨 변화로 인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노약자와 어려운 이웃 등 시민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0회 임시회

총 18건 | 조례안 18건 |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 과
3580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	김포시장	부 결 (본회의 부결)
3610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건)	김포시장	부 결 (본회의 부결)
3623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수정가결
3636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기획관	보 류
363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	원안가결
3638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스마트도시과	원안가결
363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산관리과	보 류
3640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디자인과	부 결 (본회의 부결)
364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원안가결
3642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원안가결
3643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린도시과	원안가결
3644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3645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정영혜 의원 김계순 의원	원안가결
3646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 김기남 의원	부 결 (본회의 부결)
3647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관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 오강현 의원 김기남 의원 이희성 의원	원안가결
3648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기남 의원	부 결 (본회의 부결)
3649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석 의원	원안가결
3650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기남 의원	원안가결

의원 발의 조례

제260회 임시회

김포시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정영혜 의원(대표)


김계순 의원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폭염·한파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2. 피해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 ·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3.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 효율적인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정영혜 의원(대표)


오강현 의원


김기남 의원


이희성 의원

□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보건 · 의료 · 요양 · 주거 등 통합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돌봄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2.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전담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3.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포상 등 체계적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분 자유발언

5min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7.21.)


이희성 의원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산업 발전의 핵심 기관인 김포산업 지원 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관내 사업체 수는 6만 4231개이며 이 중 제조업체는 1만 3945개로 김포시의 제조업체 수는 경기도 내 세 번째, 공장 등록 수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중 종사자 규모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시 산업구조 특성상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김포산업지원센터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회 연속으로 선정되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비 약 16억을 확보하여 지역 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계 교체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공동제품개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 14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 내 우수 사례로 선정,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김포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김포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김포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은 비율이 2022년 13%에서 2024년 20.3%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점점 더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는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추경에서 직원 채용 용역비를 편성 및 이월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13명 정원 기준 인건비를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년 이상 조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마저 이탈할 우려가 크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산업지원기관을 통해 활발한 기업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민간 투자 연계형 R&D 지원사업인 고양형 TIPS 추진, 콘텐츠 기업 육성, 하이테크 플랫폼 지원단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화장품·뷰티 산업 활성화 사업과 로봇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부천시만의 특화된 첨단산업의 육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은 중장기 기업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평택형 강소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지원기관에 투입된 예산 대비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포시는 민선 7기 김포산업진흥원으로 출범했던 기관이 민선 8기 내내 존폐 위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센터로 격하하여 이름뿐인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군포·평택 등 산업체 규모가 훨씬 적은 지자체조차 산업진흥원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할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공모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사업, 산학 연계 RISE 사업,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반기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을 위한 핵심 서비스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포산업지원센터에 편성된 직원 채용 용역을 신속히 집행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조사·연구,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두 번째 산업 크기에 걸맞은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6만 5000여 개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들의 특허 보유 현황,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기업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김포시 특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성남·고양·부천 등 타 지자체의 기업지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김포형 산업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시의 6만 5000여 개 사업체와 22만여 종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지원받고 싶어하는 기업들,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이 절실한 중소기업들, 에너지 효율 지원이 필요한 제조업체들이 모두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산업지원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안 우리 김포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52만 김포시민과 6만 5000여 개 관내 사업체를 위해 그리고 김포시가 명실상부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7.21.)



유영숙 의원

김포시민의 열망인 5호선, 이제는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애써주신 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출직 동료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5호선 연장은 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땀방울로 만든 성과입니다. 건폐장 문제, 인천과의 노선 갈등 등 숱한 위기를 넘어 5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본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지금은 신속예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이상 무산 가능성은 낮지만 유예나 지연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국 보는 이의 시각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누군가는 반이나 찼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5호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설득, 정치의 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도시입니다. 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구지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5호선 경제성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며 무려 16조 2000억의 생산 효과와 12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단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 각종 개발 계획과 인구 증가 요인을 마련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줄 때가 돼서 주고 올 때가 돼서 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와 노력이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오늘의 5호선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5호선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속예타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내면 5호선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김포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인천과의 협의가 우선이라 주장하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포시의원이면 김포에 집중해야지 왜 인천 입장에서 말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만 열어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5호선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예타 통과를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제3자적 위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열망을 얕은 정치 술수로 이용하고 기망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용산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김포를 챙기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문을 두드리며 김포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김포의 교통 현실을 경제성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고 지자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포를 위해 앞장설 때입니다. 과거처럼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에 등 떠밀려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으로 훈수를 두는 방식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산너머 불구경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김포시민의 교통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5호선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김포 연장 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5호선을 본 사업에 올리고 신속예타 결과 발표까지 달려온 국민의힘도 변함없이 김포를 위해 끝까지 중앙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7.23.)



정영혜 의원

늦출 수 없는 돌봄, 김포시의 선제적 통합 돌봄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도입 필요성과, 이에 대한 김포시의 소극적 대응 및 준비 부족, 김포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기존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 지원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나열이나 연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별 주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가족 돌봄 기능 약화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공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 돌봄 지원을 본격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부터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통합창구 설치, 사례 관리 표준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다졌으며 2023년에는 47개, 2024년 100개, 2025년 131개로 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매년 지자체 대부분이 체계적인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김포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지금까지 전담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정부의 시범사업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지역사회 돌봄의 공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에 이르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은 9만 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자, 독거가구, 퇴원환자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계층까지 포함하면 돌봄 대상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의 돌봄 서비스는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성이 크게 부족하여 사례관리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의 준비 부족과 소극적 태도는 통합 돌봄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서비스 공백과 돌봄 격차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조속히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전문 인력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통합건강돌봄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의 28종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8600여 명에게 2만 6000건이 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만족도 96%, 재입원율 7%p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고 아산시의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재활 운동 및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참여 어르신의 건강지표를 25.8% 개선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의성군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원 후 지역 적응률을 높여 재입원자의 수를 크게 줄였으며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 방문진료·생활통합 서비스까지 각기 특성에 맞게 선도 모델을 뿌리내렸습니다.

이제 김포시도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첫째,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통합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 주거복지, 사례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조정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읍면동과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정례화하여 공동 과제를 논의·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자·행정인력·주민리더 대상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웃이 돌보는 김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자조돌봄 공동체 모델을 설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으로 통합 돌봄의 길은 열렸으나 제한된 예산과 표준모델 및 통합정보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는 지자체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크므로 정부의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의 책무입니다. 김포시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포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7.23.)



배강민 의원

돌봄은 생명! 김포의 아이들을 지키는 최후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차마 말하기조차 참담한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핵심이자 결론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생명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8살, 6살 자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생계를 위해 잠시 외출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치솟는 불길 앞에서 아무런 대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불과 9일 전, 부산 진구에서도 어린 자매가 새벽 화재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부모는 청소 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에는 인천에서, 작년 12월에는 울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장소만 달랐을 뿐 아이들은 홀로였고 돌봄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을 화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참사는 더 이상 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김포 역시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교대근무자 등 야간·주말 근무 비율이 높은 비정형 노동자가 밀집한 도시입니다. 김포시도 이러한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4년 6월부터 통진읍에 위치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을 목표로 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이지만 긴급돌봄의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야간·새벽 보육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3000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일괄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마저도 통진읍의 시립어린이집 1곳에서만 가능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김포시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개소와 야간 연장 어린이집 55개소, 시간제 보육 6개 반을 운영 중이지만 김포시의 돌봄 체계는 상당 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의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특성상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김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도 현실은 맡길 곳이 없다라는 냉혹한 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이는 혼자 남겨지고 그 짧은 틈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포의 어느 부모들은 가게 뒷방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누나가 막내를 새벽까지 돌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라는 부모들의 절규에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포,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지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지정하고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현재의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거점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야·휴일 근무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열악한 처우로는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돌봄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셋째, 현재 주로 고령자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로까지 전면 확대하십시오.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넷째,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돌봄은 아이의 생명권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해 온 어른의 책임 부재이기도 합니다. 설령 김포시가 제도적 기반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과 촘촘한 운영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공적 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의 부담과 모든 책임은 결국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을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지자체의 의무 방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포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는 김포의 아이들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절박한 신호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며 국가 존폐의 위기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포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7.23.)



김현주 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 시민과의 약속, 버리셨습니까?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약속을 버리셨습니까?

지난 6월 20일,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에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5호선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국비 확보 요청은 했느냐?", "국회의원과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는 이 질의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이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 이행을 부탁해야 합니까?

시장에게 예산 확보를 부탁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촌극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중앙정치의 당사자입니다. 5호선, GTX-D, 문화예술회관, 대학병원 유치 등은 모두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따내고 정책을 이끌 책임 있는 일들입니다. 시장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분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GTX-D, 인천2호선 연장, 김포~하남 직결 노선, 대학병원 유치…. 정말 실현 가능성을 고민한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선을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그리고 4년 뒤인 2024년, 공약 내용은 그대로 복사되거나 명칭만 바꿔 다시 등장했습니다. 4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말입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복사해 또 내거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시의원 시정질의에서는 마치 그 공약이 김포시장이나 공무원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두 분 국회의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따지기 전에 스스로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고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공약조차 잊고 그 사업이 시 정부 사업이 된 뒤에는 시장에게 질타부터 하는 모습, 과연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시의원은 시 정부를 향해 시민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게 각자의 자리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망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시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포시민은 교통지옥 속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사진 찍고 악수하며 다니는 것으로 정치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약을 내걸었다면 실천하십시오. 중앙정부를 향해 소리 높이고 예산을 따오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게 지역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더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기억합니다. 김포의 미래를 말하려면 먼저 지난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김포시민은 지켜보며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2025. 9. 11. ~ 9. 19. 개회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황금빛 들녘이 펼쳐지는 이 계절은 풍요와 성숙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려온 노력이 시민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김포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해지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의 대응 속도도 더욱 빨라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그에 발맞추어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의정활동을 현재까지 펼쳐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에서 약 1774억이 증가된 규모로 제한적인 세입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로 유지관리 및 설해 대책 운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도 선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 요구액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총 1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초생활 보장과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풍무 ·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인프라 확충 또한 놓치지 않고 편성하여 시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 있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 대책을 담아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울러 재정은 무한하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적시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빨리 쓰는 예산이 아니라 제대로 쓰이는 예산이기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추경이 진정한 민생 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대학」의 구절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뒤 나라를 바로잡아야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임무를 다할 때 김포시의 내일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자신의 역할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 집행부 공직자의 노력을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1회 임시회

총 29건 | 조례안 19건, 예산 · 결산 · 기금안 2건, 기타 8건 |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 과
363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산관리과	수정가결
365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법무과	수정가결
3652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3653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전기획관	부 결
3654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	원안가결
3655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3656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	보 류
3657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65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원안가결
3659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원안가결
3660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수정가결
3661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과	원안가결
3662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광진흥과	원안가결
3663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종합허가과	보 류
3664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원안가결
366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	수도과	원안가결
366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세정과	원안가결
3667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3668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3669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자유치과	원안가결
3670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식품안전과	원안가결
3671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원안가결
3672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367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석 의원	수정가결
3674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	원안가결
3675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정영혜 의원	원안가결
3676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	원안가결
3677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남 의원	원안가결
3678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유매희 의원 김기남 의원	부 결

의원 발의 조례

제261회 임시회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정영혜 의원

□ 제안이유

시민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여 시립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고, 지역 내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개인·단체 기증 절차 규정
2.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증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3.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우수 기증자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오강현 의원

□ 제안이유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공고 절차 규정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보호 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3. 실태조사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사항 명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남 의원

□ 제안이유

난임 부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난임 및 관련 시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
2. 난임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근거 마련
3.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5분 자유발언 5min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9.11.)



유매희 의원

시작의 홍수, 완성의 가뭄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완성'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는 한강2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고촌지구 복합개발, 한강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공영개발과 재개발·도시개발 · 지구단위계획을 합쳐 30곳이 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개발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합니다. 특히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영개발은 강제수용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신뢰가 사라지고 지연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걸포4지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 두 차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다가 2017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멈춰선 이후 김포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시행사가 확정되지 않아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며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잃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200% 상승한 데다가 어떤 연유인지 6개월 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10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신설 심의 과정에서 행정 미스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 정상화는 기약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항의에도 해명 없는 태도, 대책 부재 모두 문제입니다. 16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 실수와 무대응까지 더해진 현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이 사태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변상하실 겁니까? 김포시는 피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빠른 변상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시작된 한강시네폴리스는 올해 들어서야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다양한 논란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이 무려 17년이나 지연되는 사이에 산업 환경이 급격히 달라졌고 김포가 소중한 발전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김포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나 경쟁력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화·영상 등 특정 목적성을 갖고 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구조는 OTT,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김포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ICT·AI·스마트 콘텐츠, 창업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네폴리스는 결국 이름만 남은 채 또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간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나진·감정 일대, 이른바 이응시티도 있습니다. 민간이 먼저 시작한 사업을 왜 김포시가 욕심부렸는지 그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공공성 명분으로 포장된 행정 실패입니다. 김포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추진 협조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올해 분양 예정지인 풍무역세권은 또 어떻습니까? 민선 8기 들어 감사원 감사와 김포시의회 조사특위 및 기타 사유로 지연된 사업은 2024년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예정된 700병상 인하대 메디컬 유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제빙상스케이트장 유치 또한 예산만 낭비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기한이던 감정4지구 역시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태로 삽을 푸기는커녕 사업은 중단되었고 시민 피해와 금융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물량 해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지구 지정 자체가 무산된 고촌지구 복합개발도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울 편입이라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앞세우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개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변3·4·5 재개발, 향산2, 풍무7·8, 감정2 등 다수의 사업이 행정 절차만 진행될 뿐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영과 민간개발 모두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김병수 시장은 올해 8월, 1억 8000만 원 규모의 용역 입찰공고를 신규로 내었습니다. 양촌읍 ㄱ마을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이 계획에 모두가 의아함을 표합니다.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데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역민들의 다수 민원과 500명의 서명 제출이 근거라고 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수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0만 대도시에서 주민 500명의 서명이 제출되면 곧바로 억 단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기존 사업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기준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혹여 민간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려 공기업에서 보여주기식 공고를 띄운 것은 아닌지, 새로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는 아닌지 등 민선 8기,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와 의혹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김포시 발전만을 위해 진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개발의 난맥상은 결국 시장의 의지와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연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의 정상화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둘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 남발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김포시민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겹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도시개발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가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9.11.)



한종우 의원

계양-강화고속도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을 지하화하라.

존경하는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김포시민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 지상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계획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한복판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곶과 양촌·하성을 관통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인해 농지는 물론 우리의 정서와 소통에 거대한 장벽으로 단절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이 지상화가 된다면 거대한 벽 앞에 콤팩트시티의 기능은 상실된 채 도시가 동서로 갈라지고 주거와 상업, 공원과 학교, 모든 생활공간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됩니다. 거대한 벽으로 인해 도시의 가치는 반토막 나고 시민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비용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보다 숫자 몇 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시민 피해 구체화입니다. 지상화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을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소음은 매일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고 분진은 창문을 열 수 없게 만듭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주민은 집 앞에 거대한 방음벽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벽은 단순한 방음벽이 아니라 단절과 고통의 벽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 도시입니까? 김포시민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국토부, 도로공사 책임 추궁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정말 김포시민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지하화했고 분당에서도 지하화했으며 수서에서 역시 지하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포만 지상화입니다. 김포시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검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시간을 끌고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형평성, 사례 비교입니다. 왜 서울과 분당·수서는 되는데 김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김포만 소음과 분진, 도시 단절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김포시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8km 구간에 약 1634억이 투입됩니다. 지하화 시 추가 비용은 약 2346억. 그러나 방음벽 설치비, 환경 개선 비용, 주민 갈등 비용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큽니다. 비용이라는 논리 속에 김포시민은 저급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비용 논리는 허구이며 김포시민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대안과 요구입니다.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김포한강2콤팩트지구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공식 확약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업비 분담을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LH와 즉각 협상에 착수하라. LH가 도시개발로 이익을 본 만큼 당연히 책임 있는 분담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 단계부터 지하화를 반영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말로만 추후 가능성을 언급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 시민의 존엄 그리고 김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포가 더 이상 수도권의 변방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지하화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만약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끝내 김포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김포시민의 좌절감이 저항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민은 지하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가로막는 아스팔트 장벽이 아니라 지하화 위에 숲과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김포의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김포의 미래는 지하화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9.11.)



배강민 의원

독일로 날아가버린 리더십…. 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부의장 배강민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김포시정의 민낯과 김병수 시장의 시정 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청 지하에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 4년간 이어져 온 이 공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재입점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은 대화가 아니라 고소로 응답했습니다.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협동조합을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공감과 공생 대신 갈등과 법적 공방을 선택한 김병수 시장의 행정, 그것은 시민과 맞서는 행정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카페 폐쇄와 보복을 지적한 기사에 '이건 행정입니다! 행정!'이라고 언성을 높이던 김포시 관계자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이런 게 행정이라면 행정이 '깡패'와 다를 게 뭘까."

지난 8월,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 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로 9일간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연수라 했지만 출장 비용이 1인당 약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관광 일정이 섞인 피서성 외유로 드러나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침수, 도로 붕괴,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센 여론 반발 끝에 연수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해외연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수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 4일, 4명의 단체장과 함께 영국과 독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 분야 역량 강화가 그 목적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만큼 시급한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데 꼭 지금 해외연수를 강행해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울릉도 연수를 계획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논란 속에서도 절반의 부서장을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이동만 수일이 걸리고 기상 악화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울릉도에서 과연 실질적인 리더십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이 시기에 간부들이 수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시정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 김포 전역이 침수되고 결국 시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던 그 시각, 김병수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애기봉 기념식 단상 위였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김포시 주간 행사에도 없는 사실상 비공식 행사였고 같은 날 공원 내 스타벅스 굿즈(Goods) 출시가 겹쳐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시장이 단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재난 행정은 실패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공개한 2025년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3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행정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외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따로따로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을 뒷전으로 두는 행정,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은 묻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올바로 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는 지금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카페를 폐쇄하고 해외 출장을 추진하고 울릉도 연수를 강행하고 폭우 속에서 행사를 이어가고 기관경고를 받는 행정으로는 결코 김포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김포시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행정은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52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김포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뼈아픈 성찰 속에 바뀌기를,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9.19.)



김계순 의원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고촌읍·풍무동·사우동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골드라인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제230회 임시회에서 현대로템의 운영사 선정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골드라인 직원이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 된 사례와 관련한 논란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본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인사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의 채용이나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난 2월 현대로템은 업무직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의 고교 선후배 관계가 드러나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용공고에는 일관되게 직무 관련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했음에도 유독 이 채용에서는 고객서비스 경력 20년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지점장 경력이 도시철도 고객안전원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현대로템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고용 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운영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준비단에서 근무한 코레일 출신 간부가 정규직 1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코레일 출신 인사 2명이 각각 관제팀장과 승무팀장으로 정규직 3급에 임용되었는데 그중 1명은 이전 운영사에서 업무직 5급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 상향된 직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채용이 앞서 입사한 간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 자료에 따르면 UTO, 즉 무인완전자동화시스템 추진단의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채용된 사례에도 의문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입사공고 절차 없이 발령되었으며 조직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입사 직전까지 현대로템 상근 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입사 이후 지난 6일 기준 61건의 출장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개인적 인연은 있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 "정년이 남은 간부라 정규직으로 선발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모두 계약직 신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경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위탁사업 관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현대로템의 인력 채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골드라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생명선이며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는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운영사의 인사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로템은 과거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 골드라인 직원의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에 이어 2025년 6월 언론보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표적 비리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로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골드라인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편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둘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현대로템 측에 시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
셋째, 이번 논란이 된 인사 채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무효화 등 책임 있는 대응을 검토할 것.
넷째,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김포골드라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김포시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얼마나 철저히 수습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9.19.)



정영혜 의원

김포시 예산 운용의 부실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675만 6000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고 책자를 재차 인쇄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입·세출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과 담당부서,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려놓으니 결국 3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땜질일 뿐 결국 빚으로 돌아옵니다.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매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결여된 모습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과정의 법적 사전절차 누락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비 20억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되어 무려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 편성했고 결국 의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며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행정 실책입니다.
또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20억을 가져 올 만큼 긴급한 세출 편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시비 15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실을 담당 부서 스스로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편성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복과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재정위기 시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셋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비 반납이나 사업 축소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민이 있기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해외 방문, 대외활동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재난재해, 대규모 사업, 예산 운용 등 내부행정 운영에도 더 신경 써 김포시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김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9.19.)



오강현 의원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행정의 방향, 특히 공공청사 내 공간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연이어 입점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애기봉 전망대 카페, 모담도서관 북카페, 김포시청 내 카페 등의 운영 주체로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6월, 김포시는 청사 내에서 4년간 91.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꿈카페를 밀어내고 필리핀 기업이 소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습니다. 2025년 5월 10일 개관한 운양동 모담도서관의 북카페 또한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29일 애기봉 전망대에는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단 500원의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직원들이 500원 더 싼 커피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5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가격이 싸니까 외국계 대기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김포시가 보인 행동입니다.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월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김포시는 파파스월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 기자와 파파스월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파파스월의 손을 들어주며 김포시의 처분이"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중재위원회도 각각 불송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포시는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단지 커피를 파는 공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애인과 청년,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그 공간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닌 사회통합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김포시의 추세와는 다르게 평택시는 장당도서관, 평택항홍보관 등 여러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민관협력 자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카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시청, 구청, 복지관 등 10여 개 공공기관 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입점하여 장애인·다문화가정 중심의 고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모델인 대전시의 건강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브랜드로 시청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시흥, 구리, 여주 등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은 청사 내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뛰어넘어 일자리·지역경제·사회적 가치·사회 통합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순기능을 실현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공의 공간을 누구에게, 왜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카페는 내쫓고 입점 기준은 깜깜이이며 공공시설을 외국계 대기업의 영업 공간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행정입니까? 물론 애기봉 스타벅스의 경우 방문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애기봉 형상을 이용한 스타벅스 굿즈인 머그컵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익에 김포시는 단 0.1%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용인시의 경우 캐릭터 조아용을 에버랜드 제안에 따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판매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여 시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봉이 유명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애기봉에 입점한 스타벅스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 행정이 도움을 주는 것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애기봉에 입점한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닌지라는 회의적인 생각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연이 아닌 김포시정의 선택이자 김병수 시장의 결정이며 또한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

그러나 민선 8기 김포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장애인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단기적 화제성에 만족할 것인가? 장기적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

김포시는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의 공간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담는 그릇입니다.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2025. 10. 20. ~ 10. 23.

개회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높아져 풍요와 성숙을 상징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풍성한 결실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춘경하운 추수동장(春耕夏雲 秋收冬藏)'이라는 옛말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 속에서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 등의 안건들은 모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잘 뿌려져야 내일의 김포가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은 조례 하나, 단순해 보이는 안건 하나도 결국은 시민의 불편을 덜고 안전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다름 속에서도 화합할 때 의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기에 이번 임시회에서도 협치와 협력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및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의회 보고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자료 제출 부분에서도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쉬운 답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우리 시에서 늘어나는 업무와 자료가 반비례하여 조직의 인력이 부족하기에 행정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챙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장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대부분의 보고와 자료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접적인 혜택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후부터는 의회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해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자료가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기대와 바람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활발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가 화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나아갈 때 김포시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이자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김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제262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2회 임시회

총 33건 | 조례안 12건, 기타 21건 |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 과
3656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3663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종합허가과	원안가결
3679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	원안가결
3680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원안가결
3681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682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	미래전략과	원안가결
3683	김포시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원안가결
3684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	원안가결
3685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문화과	부 결
3686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3687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	원안가결
368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 수련관 건립】	교육청소년과	원안가결
369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모공원 관리사무소】	노인장애인과	원안가결
3692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총무과	원안가결
3693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정책과	원안가결
3694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원안가결
3695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원안가결
3696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원안가결
3697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원안가결
3698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원안가결
368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수산성 토지매입】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369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안리 유적 토지매입】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3699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3700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광진흥과	원안가결
3701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체육과	원안가결
3702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정책과	원안가결
3703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원안가결
370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수정가결
370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수정가결
3706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수정가결
3707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감염병관리과	원안가결
3708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수도과	원안가결
3709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복지위원장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5min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10.20.)



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 기본 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 · 파주 · 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5.10.20.)



이희성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 · 장기본동 · 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 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규모의 기술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10.23.)



정영혜 의원

간접흡연 없는 김포, 금연거리 확대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혜 시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를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다 코끝을 스치는 담배 연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의 불쾌함, 아이와 함께 걸을 때 느낀 불안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리의 공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요 공공장소와 도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의 생활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시민의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비흡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금연거리 확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흡연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비흡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하였고 협약 제8조는 "모든 국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각국 정부가 공공장소에 흡연 구역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간접흡연 피해, 환경오염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 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김포시의 금연거리 지정 현황을 보면, 현재 7개소 중 6개소가 사우동 인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운양동 · 구래동 · 장기동 등 신도시 지역은 아이들이 등 · 하교하는 통학로와 젊은 세대가 모이는 상업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일수록 금연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김포 운양역 인근 상업지역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공공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가족 단위로 유동 인구가 많고 유아와 임산부의 통행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상가 주변 인도에는 흡연자들이 몰려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상가 점주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발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행정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김포시 금연지도원은 6명으로, 1인당 약 2800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업무지침은 1000개소당 지도원 1인 이상을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지도와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투기는 하수구 막힘과 화재 위험을 높이고 청소 비용과 환경정화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의 폐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금연지도원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실질적인 금연 지도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단순한 금연 구역 표시에 그치지 않고 금연 벨 설치나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같은 생활밀착형 금연 지원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집중되어 있는 금연거리의 구조적 편중을 고려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밀집해 있고 가족 단위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금연거리 지정은 도시 미관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정책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흡연 지도 · 계도 시스템과 현장 관리 인력의 확충 그리고 더 나아가 상권 보호 및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밀폐형 정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등 대체 공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배 냄새 없는 거리가 곧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살기 좋은 김포로 이어집니다. 주민의 건강권 보장, 공중위생 향상, 도시환경 개선, 나아가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다층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운양동 상업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김포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비흡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양역 인근 금연거리 지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 주십시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강한 김포, 깨끗한 김포는 시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간접흡연, 오늘도 하셨습니까? 내일도 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품격이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10.23.)



오강현 의원

2025년 김포시 청년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청년으로,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이끌려 현지로 향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해외 치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청년의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 총인구 약 48만 5000명 중,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약 23%을 차지합니다. 이들 청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9세에서 24세 사회초년층이 약 2만 명, 25세에서 34세 자립전환층이 약 5만 명, 35세에서 39세 역량강화층이 약 3만 명 정도로 나뉩니다. 이처럼 청년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와 욕구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39세라는 단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 부모를 똑같이 청년이라 부르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이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제를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하여 새로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정책 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포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청년기본소득,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형식적 사업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 당사자는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느낍니다. 즉 청년 지원 사업은 있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어젠다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입니다. 구래 창공 폐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포 전역에 권역별 거점형·테마형 청년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김포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전환해 공간·사업·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창공을 주거·창업·문화가 결합된 복합 허브로 리뉴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자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청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연결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김포형 교통 완화 패키지입니다. 국가의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위에 김포형 추가 환급·마일리지 적립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내·마을버스, 김포골드라인, 공유자전거·킥보드 등 PM과 환승을 연계해 실제 체감 비용을 낮추고 통합시스템에서 축적되는 교통 데이터로 노선·인프라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의 고유한 교통 취약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체감형 자립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주거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에 평형 배분 개선 및 시범단지 적용을 건의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정부, 경기도와 연계해 확대하고 김포형 신혼희망타운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기에서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때 평형 상향 이동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정착-지역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국가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적극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미스 매칭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복지포인트·정책 수당을 김포페이 복지몰과 연동해 지역 중소기업 상품·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청년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낯선 타국에서의 한 청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청년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김포 청년들을 위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꿈을 시작하는 청년, 삶을 꾸려가는 청년, 미래를 키워가는 청년, 이렇게 인생의 세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제게 말하더군요. "김포가 저를 버리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곧 떠나려고 합니다." 김포를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김포시가 이 변곡점 한 번 한 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과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도시로, 지속 가능한 젊은 도시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5min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5.10.23.)



김현주 의원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는 김포 땅, 김포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실효적 지배 확보와 지자체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 그리고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2개 지역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이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립 중심의 처리 방식이 아닌 소각 및 자원화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김포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근거한 생활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행정위탁이 아니라 2026년 직매립 전면 금지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공공소각시설은 자원화센터 등 기존 설비의 용량 한계로 인해 전량 자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잔여 생활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김포시가 자립적 폐기물 처리를 구축하고 수도권매립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면적은 56만 평이며, 김포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8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권 인구는 2024년 기준 3만 8609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 행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 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 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김포시는 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의 자립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2025. 12. 1. ~ 12. 15.

개회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찬 기운이 완연해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워진다"는 말처럼, 올 한 해 끝자락에서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4회 임시회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회기로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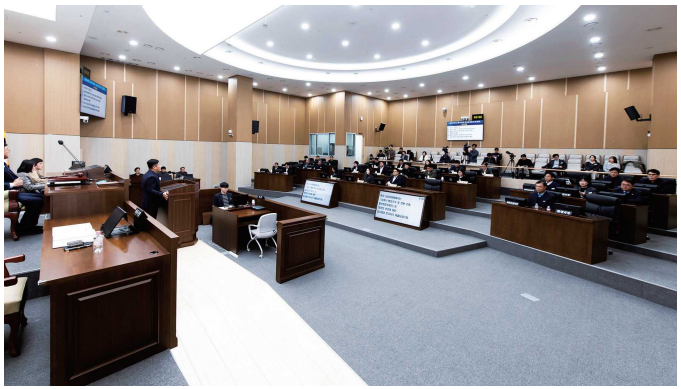
특히, 2026년도 김포시 예산안은 1조 7735억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02억이 증가한 수치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한 예산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생계급여 등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을 편성하여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및 교육 경비 지원,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 등 약 403억을 편성하여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발전 혁신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약 1466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약 724억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집중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본예산은 김포시의 1년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포의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이 담겨야 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되돌아보면 2025년 우리 김포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많은 도전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교통, 복지, 도시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행정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원 현장을 살피고 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비록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김포시의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다가오는 겨울은 한파와 폭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자분들의 생활을 살피고 시민 누구도 추위와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김포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김포시와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4회 임시회

총 25건 | 조례안 13건, 예산 · 결산 · 기금안 3건, 기타 9건 |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 과
3710	2026년도 본예산안	예산법무과	수정가결
37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3712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전기획관	원안가결
371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	원안가결
3714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	원안가결
3715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정보통신과	수정가결
3716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717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718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원안가결
3719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과	원안가결
3720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건설도로과	수정가결 (본회의)
3721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정수과	원안가결
3722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3723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3724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역경제과	원안가결
372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도시계획과	보고청취
3726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3727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3728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클린도시과	수정가결
3729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클린도시과	원안가결
3730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3731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	원안가결
373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희성 · 배강민 의원	원안가결
373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유매희 · 한종우 의원	원안가결
373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의원 발의 조례 제264회 임시회

김포시 아마추어 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계순 의원

□ 제안이유

재난 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민간 아마추어무선 자원을 활용한 보조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2.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재난 대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3. 지원금 신청 및 정산 보고 등 보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이희성 의원(대표)



배강민 의원

□ 제안이유

첨단 기술을 도입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및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모빌리티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2.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첨단 교통수단 도입 사업 시행 근거 마련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 명시

의원 발의 조례 제264회 임시회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



유매희 의원(대표)



한종우 의원

□ 제안이유

농촌 봉사자(군인 등) 대상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대민봉사 활동을 활성화함.

□ 주요내용

1.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관한 자격 요건 규정
2. 보험 계약 체결 및 가입 절차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3. 보험료 청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착공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시 4공구 중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이 지상 고속도로로 계획되면서 도시 단절,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악화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가 우려되는 바, 이에 김포시의회는 해당 구간의 전면 지하화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인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와 착공이 중단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다. 김포 구간 지하화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가능성, LH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 분담 미합의, 재정 우선순위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지상 건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도시는 단절되고 생활권은 분리되며 주거환경은 훼손되고 도시 가치는 하락한다. 실제 사례로 화성 동탄2도시는 지상 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양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했다. 인천 경인고속도로 역시 도심 단절 문제로 전면 지하화를 공식 추진 중이다. 김포는 이와 같은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전면 지하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추가 비용 4000억은 단기 부담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가치 회복과 환경·소음 문제 해결 등에서 더 경제적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기관 간 협조와 재정 분담 의지다. 이에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총사업비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와 LH는 김포시 4공구 중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 활용계획을 포함한 설계 변경을 즉시 반영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분담 구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라.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사업이다. 획일적인 도로 계획을 넘어 도시와 인프라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추진과 전면 지하화가 필요하다. 본 건의가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1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김포시의회는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며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현황(2025년)

연번	연구단체명	연구기간	참여의원
1	김포시 FUN FUN한 축제만들기 연구모임	'25년 1월 ~ 12월	 이희성(대표) 배강민 유영숙 김현주
2	BTL-BTO 활용방안 연구모임	'25년 1월 ~ 12월	 유영숙(대표) 김인수 한종우 이희성 김현주
3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모임	'25년 1월 ~ 12월	 김기남(대표) 유매희 황성석 권민찬

김포시 FUN 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연구배경	지역 특색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차별화된 축제 개발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연구주제	김포시 대표 축제 만들기	
참여의원	이희성(대표), 배강민, 유영숙, 김현주	
연구기간	2025년 1월 ~ 12월	
활동내용	2025. 1.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1차)
	2025. 4.	• 전문가 초청 세미나(1차)
	2025. 5.	• 정책연구용역 사전 간담회
	2025. 7.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2차)
	2025. 9.	• 축제 벤치마킹 – 충청북도 영동군(대한민국 와인축제 및 영동난계 국악축제) – 강원도 원주시(2025 댄싱카니발)
	2025. 10.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5. 12.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용 역 명 :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 – 용역기간 : 2025. 6. ~ 2025. 12. – 수행기관 : 뉴해리티지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 – 주요내용 ▶ 김포시 축제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 자원 및 특성 분석 ▶ 국내외 우수 축제 사례 분석 ▶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방안 제시





BTL - BTO 활용방안 연구모임

연구목적	빠르게 성장 중인 김포시는 교통·교육·의료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나 예산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주제	김포시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 유형 및 도입모델 연구	
참여의원	유영숙(대표), 김인수, 한종우, 이희성, 김현주	
연구기간	2025년 1월 ~ 12월	
활동내용	2025.1.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1차)
	2025.2.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2차)
	2025.3.	• 타지역사례 벤치마킹(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 운영사례)
	2025.4.	• 민간투자사업 공공부문 대면교육
	2025.6.	• 정책개발연구용역 사전간담회
	2025.7.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3차)
	2025.8.	• 정책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025.9.	• 타지역사례 벤치마킹(천안시, 용인시 기반시설 운영사례)
	2025.11.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5.12.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용 역 명 :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5. 7. ~ 2025. 11. – 수행기관 : 지오매직주식회사 – 주요내용 ▶ (현안사항) 김포시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 (현황조사)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조사 및 분석 ▶ (정책방안) 정책방안 및 투자모델 제시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모임

연구배경	• 향후 70만 대도시 대비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준비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도시환경 및 인프라가 우수한 '타 시 벤치마킹' 등 비교 견학을 통한 정책 개발 및 발굴 도모	
연구주제	70만 대도시 대비 인프라 발굴 및 정책 개발	
참여의원	김기남(대표), 유매희, 황성석, 권민찬	
연구기간	2025년 1월 ~ 12월	
활동내용	2025. 2.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1차)
	2025. 3.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2차)
	2025. 3.	• 선진지 견학(1차) – 경상북도 안동시 (낙동강 시민공원, 안동선비순례길, 월영교 등 수변 인프라 견학)
	2025. 5.	• 전문가 초청강연(1차) – 김포시 국토교통물류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드론 기반 UAM 강연
	2025. 7.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간담회(3차)
	2025. 9.	• 전문가 초청강연(2차) – 김포시 AI반도체와 자율주행의 글로벌 동향 강연
	2025. 10.	• 선진지 견학(2차) – 세종시(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공주시(환경성 건강센터) 등 견학)
	2025. 11	• 전문가 초청강연(3차) – 생성형 AI 핵심트렌드 강연
	2025. 12	• 연구모임 결과 보고





청소년의회교실(솔터고)

2025.07.04.



경기도 중부권 7개 시군의회 협의회 126차 정례회

2025.07.14.



을지연습 현장 방문

2025.08.19.



2025년 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2025.09.03 .



김포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사진첩



2025.07.22.

제260회 임시회



2025.08.08.

김포시의회 청사 견학(시립구래어린이집)



2025.09.11.

제261회 임시회



2025.09.25.

김포시의회 국내 의정연찬회

청소년의회교실(향산초)
2025.09.29.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9차 정례회
2025.10.01.



의정활동자문위원회의(맑은물사업소)
2025.10.31.



김포시 인권 증진과 보장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5.11.04.



김포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사진첩



2025.10.20.
제262회 임시회



2025.10.29.
김포시의회 국내 의정연찬회



2025.11.04.
정책토론회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2025.11.11.
정책토론회 '김포시 교통취약 주차문제 해법을 찾다'

청소년의회교실(푸른솔초등학교)
2025.11.11.



제264회 임시회
2025.12.01.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식
2025.12.18.



경기도 중부권 7개 시군의회 협의회 127차 정례회
2025.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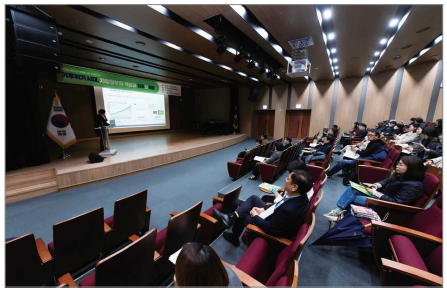
김포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사진첩



2025.12.15.
천사날개를달다 기탁식



2025.12.16.
아이사랑센터 산타릴레이 기부금 전달식



2025.12.23.
정책토론회 '기후 위기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



2025.12.31.
종무식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의회에 바란다

김포시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의회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김포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980-2412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980-2879

김포시의회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홍보채널 운영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누리집

의정활동 홍보와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소개, 의원정보, 회기운영 결과 등 종합적인 의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누리집 ▶
(https://gimpocouncil.go.kr)



소셜미디어(SNS)

소셜미디어 채널은 의정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창구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스레드

의회방송 시청안내

시민 여러분께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의회방송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중계는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김포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및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유튜브 라이브 ▶



2026년 연간 회기운영 계획

회기운영 : 7회 85일 (정례회 2회 44일 / 임시회 5회 41일)

회기	기간	주요내용	비고
제265회 임시회	1.28.(수) ~ 2.05.(목) (9일)	• 시정업무보고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266회 임시회	3. 16.(월) ~ 3. 25.(수) (10일)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67회 임시회	7. 1.(수) (1일)	•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식 • 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제268회 임시회	7. 14.(화) ~ 7. 24.(금) (11일)	• 시정업무보고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제269회 임시회	8. 31.(월) ~ 9. 9.(수) (10일)	•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70회 정례회	10. 13.(화) ~ 11. 3.(화) (22일)	• 2025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시정질문	
제271회 정례회	11. 25.(수) ~ 12. 16.(수) (22일)	• 시정연설 청취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시정질문 • 2027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소식지 구독 신청

김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홈페이지 접속 https://gimpocouncil.go.kr/

02 의회소식 – 의회홍보

03 의회소식지 – 무료구독신청

[문의] 의회홍보팀
031-980-2497




의회
김포시의회
Gimpo City Council